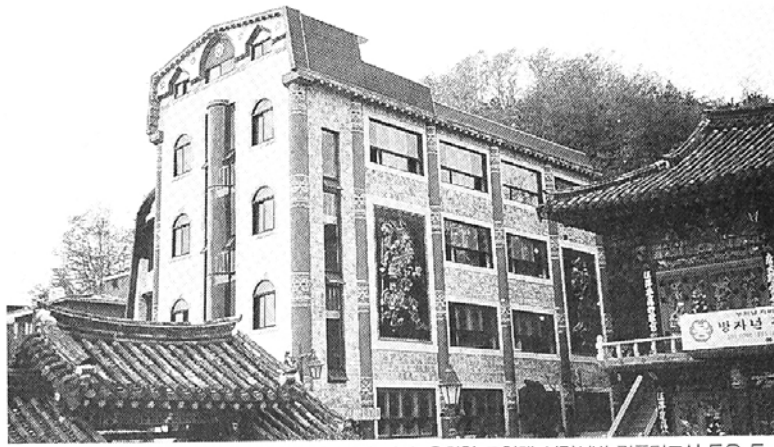


조동종 종합 불교회관

'보리원' 개원

교양대·유치원·시민선방·컴퓨터교실 운영



◇지난 7일 개원한 용천사 불교회관 보리원 전경. 유치원 교양대 시민선방 컴퓨터교실 등을 두루 갖춰 대중교화에 나선다.

교양대 유치원 시민선방 컴퓨터교실 등이 복합적으로 운영되는 종합불교회관 보리원이 개원했다.

조동종 총본산 용천사(조실 운파스님·조동종 종정)는 지난 7일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경내에서 건립 3백12명의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인 보리원 개원식을 갖고 대중불교교도교도로 거듭난 것을 염원했다.

오는 12일부터 학생모집에 들어가는 보리불교교양대학은 60명 정원의 불교학과를 설치해 불교교리의 체계적 교육을 통한 불교대중화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2년과정의 보리불교교양대학은 조동종에서 발급하는 포교사자격증도 수여할 계획.

또 컴퓨터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용 컴퓨터 30대를 구비하여 컴퓨터교실을 운영한다. 스님반 종무원반 신도반으로 나눠 사부대중화(OA)과정으로 이루어지며 일정이간이 지나면 주변지역의 주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어린이포교의 강화를 위해 내년 3월부터 연화유치원을 불교회관 2~3층에 개원하고 50평규모의 시민을 위한 선방도 마련한다.

김원우 기자

종단소식

태고종 26일 정기총회

태고종(총무원장 해초)은 오는 26일 총무원 설립전에서 제 73회 정기중앙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에서는 △학교법인 태고학원설립승인 △승정주대 인준안 △97년도 종단세입 세출 사업계획안 등이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삼광사 육시 정진법회

천태종 부산 삼광사(주지 춘광)는 지난 2일 5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11시부터 9일 오전9시까지 7박8일 동안 829승33불탑 원만조성기원 6시정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법회는 매일 여섯차례 정진에 들어가 1시간동안 관음주를 염송하고 종회의장인 덕산스님 설법을 듣는 것으로 진행됐다.

한편 내년 4월 회향예정인 824승53불탑은 법화경사상과 천태지지대사의 대승사상이 이 땅에 뿌리내려 불국토를 실현한다는 원력이 담겨있다.

진각종 666명 수계식

진각종(총무원장 락해)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과 대구에서 진기 50년도 삼매야계단 보살심선계 관경수계법회를 개최했다. 도흥종사를 전계사리리로 해 일종사를 갈마사리리 지공공사를 교수사리리로 열린 이날 수계관정법회에서 6백66명의 신도들이 수계를 받았다.

일본의 샐러리맨들이 불교에 귀의하고 있다.

일본 시사주간지 '아에라' 최근호에 따르면 지난해 승려를 일반공모한 비예산 연례사에는 3백여건의 문의전화가 빚발쳤으며 6:1의 경쟁을 보았다고 전했다.

일본에서 불교수행의 길을 안내해주는 도쿄국제 불교학원 '아에라'는 3백여명이 수계로 3년전 1백여명보다 3배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에라'지는 일본 샐러리맨들의 불교 입문에 늘어나는 것을 거품경제의 몰락과 감원열풍으로 평생직장의 신화가 깨지면서 입산하여 수도승이 되기도 한다고 분석했다.

티벳 라마불교에 대한 전면공세가 중국 관영인론을 통해 예고되고 있다. 중국의 (서정일보)는 지난 13일자에서 "지난 수년간 티벳 자치구에 대한 종교정책실제로 인해 일부 지역이 무질서의 상황으로 변했다"며 "현 종교정책의 대대적인 수정을 촉구"했다.

서정일보 보는 또 "사회주의가 종교의 필요에 적용할 수 없다"며 라마불교가 사회주의 발전필요에 적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서정일보의 이같은 반불교 논평을 라마불교가 중국정부와 당의 지도력을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관측자들은 이같은 주장이 사민 및 승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부자씨 ◇김영희씨 ◇김영애씨 ◇김영희씨 ◇김영희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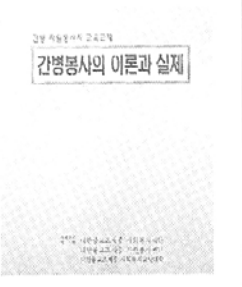
MBC 새 주말극 '사랑하니까' 불자탤런트 대거 출연

MBC TV가 오는 12월 초부터 방송할 새 주말극 '사랑하니까'에 불자탤런트들이 대거 출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랑하니까'는 기독교집안과 불교집안 출신의 두 남녀가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이르는 이야기. 이 드라마의 남녀주인공인 기독교집안의 딸 역할은 불자탤런트 심은하씨가, 불교집안의 아들역할은 영화 '유리'에

서 주인공을 맡았던 박신양씨가 맡았다. 또 여기에 심심 단독하기로 소문난 강부자, 김용림, 김영애씨등 불자탤런트들이 출연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정주)은 최근 활동자가 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불교사회복지 관련 교재 4권을 동시에 발간했다.

사찰 및 불교복지기관 실무자, 사회복지학계, 일반불자들이 불교사회복지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더욱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이번 교재는 제1



간병봉사의 이론과 실제

불교사회복지 교재 조계종 4권 동시 발간

권 <불교와 사회복지>, 제2권 <자원봉사, 삶의 보람>, 제3권 <간병봉사의 이론과 실제>, 제4권 <장의예식봉사의 실제> (조계종출판사 펴냄)이다. 이 중 3·4권은 조계종 사회복지교양대학 교재로 사용된다. <불교와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개념 및 기능, 역사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사회복지 방법론 및 분야별 복지사업 소개하고 각 단락마다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불교사회복지의 내용을 정리했다. <자원봉사, 삶의 보람>은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불자 및 사찰·신행단체들의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자원봉사의 의미와 역사, 각 사회복지분야별 자원봉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간병봉사의 이론과 실제>는 간병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불자들이 교육에 필요한 예습·복습을 할 수 있는 교재로서 불교의 간병봉사사상과 기본적인 간호방법, 임종시 대처방안 등을 수록해 놓았고 <장의예식봉사의 실제>는 불교 장의예식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이론 및 의식절차, 목탁의 사용방법, 재가의 제사방법, 예식시 필요한 특경 등을 수록해 놓았다. 한편 사회복지재단은 한국의 불교복지시설 실무자(과장급 이상) 인적현황과 관련된 공공기관, 관련학회 종사자 명단 등을 수록하는 <불교사회복지의 내용> 실무자 수첩"을 이달말에, <불교사회복지 편람> 정보판을 올해안에 각각 펴낼 예정이다. (02)734-0610~1 (재)

지난 12일 중앙승가대 학인 스님들이 '동대 기숙사' 반환을 요구하며 학장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승가대학학생회는 "지난 10월 30일로 계약이 만기된 만큼 기숙사를 돌려줘야 하며 정규대학으로 승격하는 내년에 대학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동국대측에 반환 확정일자를 명기한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반환되지 않을 경우 불리적으로 점거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다. 승가대가 반환

요구하고 있는 동국대 기숙사는 '기원학사'로 27년동안 걸린 반환을 요구하며 학장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승가대학학생회는 "지난 10월 30일로 계약이 만기된 만큼 기숙사를 돌려줘야 하며 정규대학으로 승격하는 내년에 대학원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동국대측에 반환 확정일자를 명기한 문서를 요구하고 있다. 올해 12월까지 반환되지 않을 경우 불리적으로 점거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이다. 승가대가 반환

문서를 제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감정적으로 있어 처리될 경우 양측 어느쪽도 순순히 물러날 기세는 아니다.

일산 제3캠퍼스에 건설하려는 새 기숙사는 8백명 수용의 청사건만 있을뿐 건립이 착수 명에 처해있다. 53명의 기숙사생들이 졸지에 오갈데없는 지경이 되도록 기숙사 대책 마련에 소홀한 동국대는 학생들의 불만 토로에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됐다. 또한 승가대학학생회에 대해서도 물리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같은집안에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교계의 얘기도 나오고 있다. 상부상조해 도 어려운 현실에서 동국대와 승가대 대화롭게 풀어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총무원도 교육환경이 개방화되는 시점에서 종합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하다.

불기2541년 한국의 명찰 달력 보급안내

나한도

달력크기/26cm×26.7cm 보급료가 1부당 / 1,300원

귀의 삼보하하고, 저희 감로기획에서는 불기 2541년 정축년 불교달력(한국의 명찰, 나한도)을 기획·제작하여 보급합니다. 전국에 계신 대덕 큰 스님의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로기획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 ☎(02)723-4306~7 FAX: (02)738-8682

성도절 범회 선행자료 및 범보시 책자 보급 안내

사찰의 '사보(寺報)'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도절 범회 발원문, 부처님이 되신 뜻, 성도절에 얽힌 이야기, 부처님 성도의 의의,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등을 신도님들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성도절 범회 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범회동참의 중요성을 강조하실 수 있으며 성도절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범보시가 될 것입니다.

■ 수록 내용 ■

제1부 발원문	제3부 부처님이 되신 뜻
1. 성도절 발원문	1. 부처님 성도의 의의
제2부 드디어 부처를 이루시니	2. 성도절을 맞는 불자의 자세
1. 예언은 적중하고	제4부 성불에의 길
2. 왕궁에서 숲으로	1. 모든 중생은 불성(佛性)을 갖고 있다.
3. 오로지 도를 얻고자	2. 앞서 간 구도자들
4. 신세벽에 성취한 깨달음	1)알굴리말라, 2)용녀의 성불

■ 200원 이상 주문시 책표지에 사찰명용, 그리고 범회안내 등을 추가로 인쇄하여 드립니다. ■

■ 특집 '사보'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크기/신국판(152mm×223mm) 64페이지

■ 맨 뒷장에 범보시지 이름을 넣어드립니다.

■ 미리 접수 바랍니다. ※ 범보시 특가/1권당 1,200원

《온라인번호》

농협 053-01-127096

국민은행 817-01-0172-306

우체국 010579-0028865

에금주 선문빈

감로출판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3번지(안국동로타리) ☎(02)723-4306~7 FAX:738-8682